

■ 특집 / 중국 약초 재배지를 가다 ①

# 광활한 대륙 끝없이 이어지는 약초밭

## 안국약재시장, 3천여종 중약재 하루 4백여톤 거래

북경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건 마치 자로 잰 듯 반듯 반듯하게 경지정리된 논밭과 곧게 뻗은 도로, 강렬하게 시야를 자극해오는 붉은색 깃발들. 와 드디어 중국이구나!

오후 2시쯤에야 퇴가촌이라는 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우리가 들를 첫 코스는 북경에 위치한 약용식물연구소다.

### 북경약용식물연구소

지난 50년대 초 개원한 중국의학과학원의 북경약용식물연구소는 지난 1983년 8월22일 문을 열었다. 중국의학과학원 부속으로 출발했으며 운남, 해남, 광남성에 분소를 두고 있다. 약용식물연구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경. 오래되고 낡았지만 담쟁이 넝쿨들이 보기 좋게 자리잡은 건물들이 긴 역사를 말해주는 듯 편안하고 고풍스럽다.

약용식물연구소는 현대과학기술과 방법을 응용, 중국약용식물 자원의 보호 육성과 개발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용식물재배실, 약용식물지원실, 약용진균실, 식물화학실, 화학실, 약리실, 면역실, 종자유전자은행 및 표본관 등 9개 연구실로 구성돼 있다.

262묘(약 52,400평) 규모의 약용식물원이 조성돼 있으며 1천2백여종의 약용식물 품종이 효능별로 분류돼 식재돼 있다. 연못과 고궁들이 공원처럼 형성돼 있는 이곳 약용식물원은 약용식물 종자 수집, 순화재배연구로 식물자원의 보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본실에는 이름만 들던 희귀한 약재들부터 흔히 쓰는 약재에 이르기 까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을 모두 포함, 5천여종의 약재 9만여본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올해로 개소 18년째인 약용식물연구소는 그간의 많은 연구성과들로 국가로부터 그 권위를 인증 받으며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되어 다수의 석·박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1천여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였고 「중약지」, 「중국본초도록」, 「중국약용식물재배학」 등의 책지도 발간했다.

다수의 국가중요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그 중 〈서양삼 농가재배기술연구〉 〈상용중약재 품종정리 및 질량연구〉 〈800종 중약종자 생리적 연구〉 〈약재이용한 계열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는 국가 시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86년부터 중국전통의학의 연구를 위한 WHO 공동(합작) 연구센터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고 동서 40개국 이상 나라의 대학, 과학조직, 제약회사 등과 정보를 나누며 연구원 교류 등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엔 중약재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우수농업규범)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라고 한다. GAP제도란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

생산단계와 약리학적인 분야의 주무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는 생산단위 재배기술 연구에서부터 생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질 및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돼 있는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셈이다.

### 안국약재시장

이튿날, 오전 일찍 서는 안국 약재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침을 먹는동 마는동 서둘러 차에 올랐다.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산이라고는 구경할 수조차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북경에서 서남고속도로를 약 235km 달려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안국시. 끝도 없을 것같은 평원의 옥수수밭은 안국에 가까워지면서 약초밭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낮익은 황기밭을 포함해서 보라색 꽃이 앙징맞은 황금밭, 산약, 익숙한 것들에 대한 반가움과 끝없는 평원의 규모에 대한 감탄은 긴 한숨으로 이어지고, 이 넓은 땅에 이 많은 약재들과 경쟁해야 할 국내 생약농업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농토는 모두가 국유지다.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30~50년 땅을 임대받아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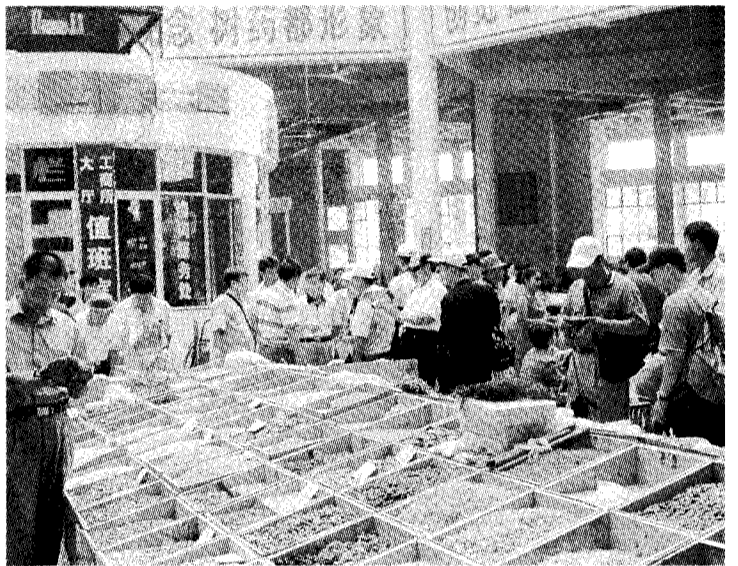
사를 짓고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공납하고 있다. 년평균 농가 소득규모는 인민폐 3,000~4,000원 정도라고 한다.

“동방약성(東方藥城)”이라 불리는 안국 약재시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벌써 시장의 거래열기가 조금씩 식어 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아직도 많은 내외국인들이 북비는 이곳 시장은 활기에 넘쳐보인다.

약재샘플들을 진열해 놓고 상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여자들이 많다. 중국 여성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풍경. 한국의 수출입상들이 자주 찾는 곳이어선지 어떤 상인들은 서툰 한국말까지 동원해가며 열심히 흥정을 붙이려 드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상점 바닥 이곳저곳에는 장구나 마작 게임들을 즐기며 느긋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엄청나게 큰 규모도 규모지만 생전 처음보는 약재들과 크기에서부터 모양, 색깔에 이르기까지 동일품목임에도 산지별로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절로 입이 벌어질 정도다. 대국(大國)은 대국(大國)이구나 싶다.

이곳 안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약재들은 황기, 황금, 우슬, 시호, 백지, 방풍, 지모, 천화분, 패모, 산약, 과루인, 단삼 등 약200여종의 꽤 다양한 품목들이 고루 재배되고 있다.

건평 5만여평의 안국약재시장이 개장된 것은 지난 94년. 기존에는 노점에서 운영되던 것을 안국시 정부에서 약재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현대식 약재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 약 3천여종의 중약재가 하루 400여톤 가량 거래되고 있다. 연간 거래규모는 30억(4,500억원)이며 오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국약재시장에는 내외국 수출입상 1만5천여명 정도가 북적여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안국약재 시장 주변에는 1,046개 약재상점과 1백여개 이상의 약재 수출입공사들이 운집해 있고 8,000여개 좌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약재상들이 중약재를 주문하고 그 불건을 공급하는 곳은 바로 이곳에 운집해 있는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국약재시장은 1만5천여명의 내외국인 수출입상들로 북적여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다.

수출입유통공사를 통해서다. 시 전체가 동방약성으로 불리는 약재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안국시는 또한 북경, 천진 석가장 등 3대 도시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교통이 발달, 약재교역의 중심지로서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약초재배농가를 찾아가는 시골 거리도 하나같이 반듯반듯 곧게 뻗어있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특성은 안국시가 세계적인 약재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한 중요한 요소다.

안국 약재시장이 번성할 수 있었던 또다른 배경에는 서한 말 전란중에 약재산업을 크게 증흥시킨 정치가이자 의학자인 비동(약왕으로 숭상)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비동은 약왕으로 추앙 받았으며 광무제와 함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백성들에게 약을 채취하거나 재배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약을 만들어 백성들의 병을 고쳐줌으로서 추앙을 받았던 인물. 안국에 있는 비동의 약왕묘는 중국에서 醫師를 기념하는 약왕묘로서는 최고의 건축미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3년전 안국시에 자리를 잡고 계신 이종용 회장님(전직 협회장)의 안내로 안국약재시장과 재배농가재배단지 둘러봤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양편으로 산약, 과루인, 백지,

황금, 천화분, 산약, 우슬, 방풍, 단삼, 백출 등 약초밭이 끝도 없다. 우리가 간 곳은 북신장이라 불리는 마을로 산약의 주산지라 할 만한 곳. 이 지역의 약초재배와 겸해 약초수집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상인 왕평안씨(39세)는 “이곳 농민들의 80% 이상이 약초재배를 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40만평 정도고 농가들은 1무(2백평)에 2천~4천(인민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변의 산도 없고 가까이 강이나 저수지도 없는 곳에서 이렇듯 광활한 평야의 농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다. 이종용 회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 중국은 땅 밑으로 관수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 간혹 도로엔 우리나라 경운기 비슷한 길로비 날 가득 물을 퍼 나르는 차들이 자주 눈에 띈다. 통나무며 석탄같은 것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도 많이 볼 수 있고... 한참가니 온통 복숭아 밭이다. 길 양옆으로는 좌판에 복숭아를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하다. 손담배접을 한답시고 사람 좋아 보이는 왕평안씨가 안겨주는 복숭아 한 상자를 갖고 숙소가 있는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지는 대륙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문정희)  
(다음호에 계속)